

	광복회	보도자료	민족정기 선양 통일조국 축성 자존품위 제고
	담당부서 (담당자)	대외협력국 이메일	(부장 김재영) tel 02-780-0816, fax 02-782-5677 gwangbok@gwangbok.kr

* 보도시점: 대한민국 106년 3월 26일(화) 배포 즉시

**“세 분의 헌신은 한국사회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 영광스러워”**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내정자 소감

이희완 차관 “호주인 독립운동가 우리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 될 것”
 이헌주 교장,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과 학교 자긍심 피력
 이종찬 회장, “호주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독립 운동에
기여...양국 영원한 우정 기원”

광복회, 3월의 독립운동가 기념식 개최...성악, 뮤지컬 문화공연도



▲ 광복회는 오늘 3월의 독립운동가 호주 여성 선교사 3인에 대한 선정기념식을 열었다. 사진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내정자에게 강정에 보훈부 장관과 이희장 등이 서명한 감사 글 액자를 선물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

□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오늘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바른역사 시민강좌 ‘세계 속의 한국독립운동’ 일환으로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내정자 부부를 초청,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지원해 ‘2024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이사벨라 멘지스, 데이지 호킹 선교사 등 호주여성 세 명에 대한 공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연회와 선정패 수여식,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 ‘독립영웅’ 징표인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는 26일 오후3시 광복회관에서 열리는 공훈선양 기념식에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 호주대사 내정자 부부에게 직접 수여돼 호주에 살고 있는 유족들에게 전달된다.

□ 이날 귀빈으로 참석한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내정자는 “한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 수립은 1961년 이루어졌지만, 인적 교류는 13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면서 “양국 간 첫 인적 교류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호주 선교사가 부산에 첫 발을 디뎠던 18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호주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시설 기반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고, 이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이들 선교사 대부분은 여성으로 전환기 한국 역사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오늘 세 분은 학문적으로 또 여성운동 측면에서 일신여학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분은 한국 현대사 태동 시기 헌신적인 기여를 한 모든 호주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한 호주대사 내정자로서 유족을 대신해 선정패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호주 출신 영웅들의 독립운동 공적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어린 예우로 보답해드리는 ‘보훈’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힘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현주 부산 동래여고 교장은 인사말에서 학교 연혁과 세 선교사들의 행적을 말하면서 “선교사의 후손들과 우리 학교 출신 동문 및 재학생들에게도 큰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옳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깨우쳐 준 선교사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며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과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피력했다.

□ 이와 관련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은 환영사에서 “호주는 1950년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1919년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조선인들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다. 그들은 100여 년 전에 교육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향을 도입하고 실천하고, 3·1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호했다” 고 강조했다.

□ 김 회장은 “부산의 작은 여학교의 작은 세력들이 모여 거대한 3·1운동이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 이에 모든 호주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양국의 더욱 굳건하고 영원한 우정을 기원한다” 면서 “세 명의 독립영웅들의 업적과 정신은 한국과 호주의 우정과 친선을 더욱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 한편 수여식 이후에는 리셉션과 함께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피아니스트 이종은 씨의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나라' (채정은 작사, 한태수 작곡, 소프라노 조예희), '지금 이 순간'(프랭크 와일드혼 작곡, 테너 김태영)에 이어 조예희 김태형 양 씨의 듀엣 공연 '그리운 금강산' (한상익 작사, 최영섭 작곡) 'Time to say goodbye' (프란체스코 사르토리 작곡) 성악공연에 이어, 상해 독립운동 과정에서 딸 제시를 키우면서 기록한 양우조 최선화 부부 독립운동가의 일기를 총 15년부로 뮤지컬화 한 ‘제시의 일기’ 중에서 1년부 ‘제시의 일기’, 6년부 ‘넌 나의 맑음’, 13년부 ‘나란히 누워’ 갈라 공연이 배우 최우리 씨(제시 역)와 임찬민 씨(선화 역)이 열연을 펼쳤다.

□ 광복회는 이날 오후 2시에는 김동춘 박사(중국 연변대, 역사학)를 초청,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의 독립영웅 3인’에 대한 주제 강연도 가졌다. (끝)

붙임자료1**3월의 독립운동가 선양 기념식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제1부 강연회	
13:40~14:00	영접
14:00~14:40	강연회: 부산 일신여학교를 세워 3.1운동을 도운 호주 여성 독립운동가 - 강연자: 김동춘(중국 연변대박사, 역사학)
14:40~15:00	휴식
제2부 기념식	
15:00~15:03	국민의례
15:03~15:10	내빈소개
15:10~15:15	소개영상: 3.1운동을 도운 호주 독립운동가
15:15~15:20	이종찬 광복회장 환영사
15:20~15:25	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축사
15:25~15:35	선정패 수여식
15:35~15:40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내정자 인사말
15:40~15:45	이헌주 부산 동래여고 교장 인사말
15:45~15:55	기념촬영
15:55~15:57	건배사
15:57~16:25	리셉션& 문화공연
16:25	폐회

붙임자료2**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내정자 인사말**HOM Remarks

Vice Minister Lee Hee-wan, President Lee Jong-chan, and distinguished guests.

I am very pleased to be at today's ceremony to acknowledge the contributions of three remarkable Australian women - Margaret Sandeman Davies, Isabella Menzies, and Daisy Hocking. As Australian Ambassador-designate to the Republic of Korea, I am honoured to receive these appreciation plaques on behalf of their families.

Our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1961, but in fact, Australia and Korea have over 130 years of close people-to-people links. The first recorded contact between the two countries took place in 1889 when Australian missionary Joseph Henry Davies landed in Busan.

Busan and Gyeongnam were the cities where Australian missionaries originally delivered dedicated medical and educational services and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s social development all those years ago.

Many of them were Australian women who played important pioneering roles at pivotal times in Korea's history. These women included Isabella Menzies, who founded Ilsin Girls' School, the first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women in Busan - as well as Margaret Sandeman Davies and Daisy Hocking, who also worked at the school just over a hundred years ago. All three played a major part in both academia and activism at the school.

I believe these three Australian women well represent the early contributions all these dedicated Australians made toward the development of modern Korea.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he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for this meaningful recognition today. Thank you.

*** 한글번역**

이희완 보훈부 차관님, 이종찬 광복회장님, 귀빈 여러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세 분의 호주 여선교사,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이사벨라 멘지스, 데이지 호킹을 기리는 오늘의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한 호주대사 내정자로서 유족을 대신해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 수립은 1961년 이루어졌지만 인적 교류는 130년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간 첫 인적 교류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호주 선교사가 부산에 첫 발을 디뎠던 18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호주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시설 기반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고 이는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들 선교사 대부분은 여성으로 전환기 한국 역사에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벨라 멘지스 선교사는 부산 최초의 현대적인 여성 교육 기관 일신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데이지 호킹 선교사는 백 년전 일신여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세 분 모두 학문적으로 또 여성 운동 측면에서 일신여학교에 중요한 역할

을 한 분들입니다. 이 세 여성은 한국 현대사 태동 시기 헌신적인 기여를 한 모든 호주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호주 여선교사들의 독립운동가 선정에 힘써 주신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와 광복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3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입니다.

2024년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이사벨라 멘지스, 데이지 호킹 호주 선교사 세분의 독립운동 공적을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주실 여러 석학과 전문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님, 윤주경 의원님을 비롯하여 학술회의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9년 전,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의 암흑을 견어내고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맞았습니다. 이는 남녀노소, 신분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며, 이 중에는 일반인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호주선교사로서 독립운동을 위해 힘쓰신 분들 또한 계셨습니다.

1919년 고종황제 승하를 계기로 한민족은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담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게 되고, 3·1운동이 촉발한 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뻗어나가 부산에 이르게 됩니다.

1919년 3월11일 밤, 부산 좌천동 일대에도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함성이 울려 퍼졌고, 함성의 중심에는 부산진일신여학교의 학생들과 호주 여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독립영웅들은 학생들에게 깃대를 제공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본경찰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인솔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를 소각하여 학생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드, 이사벨라 멘지스, 데이지 호킹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분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함께 2024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하여 호주 출신 영웅들의 독립운동 공적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어린 예우로 보답해드리는 ‘보훈’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힘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술회의 개최에 힘써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4

부산 동래여고 이현주 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동래여자고등학교 교장 이현주입니다. 2024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우리 학교 전신인 부산진일신여학교의 이사벨라 멘지스 교장 선생님과 마가렛 데이비스 교장 선생님, 그리고 데이지 호킹 선생님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 구한말 신문명을 향한 개화의 기운이 가득하던 1895년, 호주 장로교 여선교회에 의해 부산진의 삼간 초옥에서 수업연한 3개년의 소학교 과정인 부산진일신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때의 일입니다, 부산진일신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부산·경남지역 최초로 만세운동을 봉기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교사 2명과 학생 11명이 투옥되었습니다. 당시 교장과 교사였던 세분의 선교사님들은 학생들의 만세 시위를 우려하면서도 태극기 제작 준비를 도와주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시위 당시 학생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 공로가 인정되어 2022년 3월 1일에 호주인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훈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참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후손들과 우리 학교 출신 동문 및 재학생들에게도 큰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사벨라 멘지스 선교사는 초대 교장으로 33년간이나 부산에 살면서 부산 여성 교육의 대모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녀는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인들과 어머니들이 반드시 교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분입니다. 호주 연방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로버트 고든 멘지스 씨가 바로 그녀의 조카입니다. 호주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파병했는데, 아마도 고모의 한국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그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렛 데이비스 선교사는 4대, 6대, 8대, 10대 교장으로 30년간 봉직한 분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의 고매한 인격과 투철한 교육관이 학교를 존속시켰습니다.

데이지 호킹 선교사는 1918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시무하였으며, 3월 11일 만세운동 당시 교장 마가렛 데이비스와 함께 시위선동 혐의로 체포되어 취조를 받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옳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깨우쳐 준 선교사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덕귀 같은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와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나온 것도 선교사들이 끼친 정신적인 자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뜻 깊은 행사에서 세 분 선교사님의 공훈을 기리고, 기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유족을 대신해 참석해주신 제프 로빈슨 호주 대사님 내정자 내외와 이렇게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 이종찬 광복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5

이종찬 광복회장 환영사

Distinguished Mr. Jeff Robinson, the designated Ambassador of Australia to Korea, and Mrs. Robinson, Vice Minister Lee Hee-wan, Honorable Member Yoon Joo-kyung, Former Ministers Song Min-soon and Heo Seong-gwan,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for attending this precious event.

On such a wonderful day, it is profoundly meaningful to honor the Australian heroes of independence who helped us during our country's difficult tim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both in the past and present, is profound, and its importance cannot be overstated.

Australia not only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in 1950 as part of the UN forces, defending the freedom and democracy of Korea, but also provided significant support to Koreans dreaming of independence from Japanese imperialism as early as 1919.

Especially, the achievements of three Australians were remarkable. They introduced and practiced the new trend that education could save the country over a hundred years ago.

They als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changing the course of Korean history, and protected the students.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waves of the March 1st Movement overflowed in a small girls' school in Busan, a port city of Korea.

These small forces gathered to become a massive March 1st Movement, which great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aying the foundation for today's Republic of Korea.

When we were struggling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ustralia had achieved full independence from Britain.

They did not stop at their own independence but joined the Allies in both World Wars to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I believe this is the great spirit and asset of Australia.

Ladies and gentlemen, Today, on behalf of the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I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all Australians and wish for stronger and everlasting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 am confident that the achievements and spirit of the three independence heroes will not only strengthen the friendship and goodwill between Korea and Australia but also inspire courage and hope to nations suffering from conflicts around the globe.

Our independence descendants will not remain in the spirit of independence but will follow the spirit of the three Australians, fulfilling our role and responsibility as global citizens. Thank you.

*** 한글번역**

주한 호주대사 제프 로빈슨과 이희완 차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송민순 전 장관과 허성관 전 장관,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멋진 날에,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왔던 호주 독립 영웅들을 기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의의는 심오하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호주는 1950년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찍이 1919년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조선인들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호주인 3명의 업적이 돋보였습니다. 그들은 100여 년 전에 교육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향을 도입하고 실천했습니다. 또한 3·1운동에 참여해 한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학생들을 보호했습니다.

한국의 항구도시 부산의 작은 여학교에 3·1운동의 물결이 넘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작은 세력들이 모여 거대한 3·1운동이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독립에 그치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 위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호주의 위대한 정신이자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독립의 유산을 대표하여 모든 호주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양국의 더욱 굳건하고 영원한 우정을 기원합니다. 세 명의 독립영웅들의 업적과 정신은 한국과 호주의 우정과 친선을 더욱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독립 후예들은 독립운동정신 선양에 머물지 않고 세 호주인의 정신을 따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